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1. 1(일)	
		작 성 · 문 의	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/ 사무관 서수철 (Tel. 044-200-2232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“새해에도 AI 총력 대응, 종식 위해 긴장의 끈 늦추지 말아야”

- AI 추가 발생 위험 지역에 꼼꼼한 진단과 철저한 방역 지시

-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유년 새해 첫날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「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(AI) 일일점검회의」에 참석하였다.
- AI 확산방지 총력 대응으로 AI 의심신고 건수가 1~2건으로 주춤하고 살처분도 완료하였으나, 최근 오리, 산란계, 메추리 등 다양한 가금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AI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.
- 그 동안은 AI가 단기간 내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전방위적 방역활동을 해 왔으며, 이제는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넘어 산란계, 오리 등 가금별 특성과 지역별 사육여건 등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형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.
- 이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, 농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.

- 아울러, 철새에 의한 추가적인 AI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단지 인근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, 동물원, 수렵장 등 자칫 놓치기 쉬운 AI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AI방역에 장기간 근무한 방역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면밀히 챙기고, AI 종식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
- 한편, 회의에서 현장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당장 고쳐야 부분은 고쳐 나가되,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꼼꼼히 챙겨 AI 종식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도 지시하였다.